

# 향토기업 행남자기 목포 안 떠난다

목포시 설득·시민 애정 고려 경기도 여주 이전 철회

## 연말까지 본사·생산공장 연산동으로

경기도 여주로 이전을 검토했던 (주)행남자기(대표이사 김유석)가 목포에 남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행남자기는 목포지역 유일의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 100년 역사를 목포에서 써 나가게 됐다.

행남자기는 9일 목포시 상동에 있는 본사와 도자기공장을 옮겨 내에 연산동 물류창고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산동 이전 부지는 2만6850㎡ 규모로, 행남자기는 이곳에 150억원을 신규 투자해 가마·성형기 등 자동화 시설을 갖춘 면적 5673㎡ 규모의 도자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장 이전과 시험 가동을

끌내고 내년부터 생활자기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신설 공장에서는 연산 33만~35만개의 생활자기를 생산할 방침이다.

목포 유일의 향토기업인 행남자기는 1942년 목포 산정동에서 창립했다. 1973년 상동으로 이전해 도자기 글로벌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상동공장이 위치한 공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행남자기는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없게 됐고, 생산설비 노후화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경

쟁력을 상실해 경기도 여주공장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수도권 공략 등도 이전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목포시의 끈질긴 설득과 향토기업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애讼, 그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애정 등을 생각해 최종적으로 목포에 남기로 결정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그동안 보여준 목포시민들의 애정을 잊을 수 없어 향토기업으로 남기로 했다”며 “연산동에서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행남자기는 지역기업으로서는 드물게 4대째 기업을 이으며 7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김유석 사장은 “창업주인 증조부

의 경영철학인 ‘협심동력(協心同力)’

이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미의 ‘협심동력’은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가족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70년간 노사무분규 기록을 세웠다. 또 직원 500여 명 중 2대째 근무하는 인원이 28명이고, 3대째 근무하는 인원도 9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순결 정성을 필요로 하는 도자기산업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뤄 최고 품질의 도자기를 생산하는 힘이 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많은 향토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목포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남자기가 경기도 여주 이전을 철회하고, 향토기업으로서 자리를 지켜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2기 부가세 25일까지 신고 납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으로 작년보다 6만명(11.3%)이 늘었다. 이를 대상자는 지난 7월 1일~9월 30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부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금 해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일까지 신고하면 이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다. 국세청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기업 사회공헌 지출, 매출 0.07% 불과”

### 생산성본부 327개사 조사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은 매출액 대비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성본부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민간기업 등 327개사를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평균 6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대비 0.07%, 영업이익 대비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응답 기업 중 사회공헌 전담 조직과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84.7%로 비교적 높았으나 이들 기업의 절반가량인 43.7%는 담당자가 단 한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9일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한 고객이 김을 고르고 있다. 제철 과일인 김은 사과의 6배나 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카로틴도 풍부해 김기 예방과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체감물가 반영 못한 물가지수 바꾼다

### 한은 “소비 비중 가중치 반영 새 지수 개발”

랐다”고 지적했다. 연체를 상승은 집단대출 연체 증가, 경기둔화 때문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0년 0.7%, 2011년 0.7%를 유지하다가 올해 1~8월에는 0.9%로 올랐다. 특히 올해 8월 연체율은 1.0%로 치솟았다.

외화차입 여건에 대해 한은은 “올해 9월 들어 외화건전성이 좋아졌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 차입여건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외화보유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사상최대치인 3169억달러다. 단기외채 비중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경기회복 빨라야 내년 하반기”

### 기업 86% 전망…대선 최대 이슈는 경제회복

국내 기업 80% 이상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1.6%가 경기 회복 시점으로 내년 하반기를 꼽았다. 이어 내후년 상반기 28%, 2014년 하반기 10.2%, 2015년 이후 6.4% 등의 순이었다.

86.2%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회복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잡은 기업은 13.8%였다.

국내 경기가 언제 바닥을 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8.7%가 올 4분기를 꼽았고, 내년 2분기(25.1%)

나 1분기(20.5%)로 잡은 기업도 꽤 있었다.

경기 악화 대응방안으로는 원가절감(7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업체에서 꼽은 올 대선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회복이었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유로 응답기업의 80.8%는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적했으며, 일자리 창출(9.4%), 경제민주화(6%), 복지 확대(3.8%) 등도 언급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으로는 72.4%가 금리인하와 주가경정 예산 편성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점을 둘어야 할 과제로는 유가·원자재 가격 안정(54.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연합뉴스

## 농협·양돈농협 판매장

### 돼지고기값 할인 판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소속 7개 양돈협은 9일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및 양돈농협 판매장에서 돼지고기를 싸게 팔기로 했다.

기간은 11~21일로, 돼지등심과 뒷다리살을 평소 가격의 50% 이하로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를 위해 전국 양돈농협이 자발적으로 도금한 돼지고기 소비촉진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농협중앙회는 8일부터 31일까지 18거래일 동안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이 kg당 3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하루 2천마리 물량의 돼지고기 가격을 구매해 비축하기로 했다.

비축한 물량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직장인 힘들땐 소주, 기쁠땐 위스키

직장인들은 힘들 때는 소주를, 기쁠 때는 위스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위스키 브랜드 킹덤은 9일 직장인 52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힘들 때 생각나는 술로 소주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맥주(29.6%), 막걸리나 동동주 등 전통주(9%) 등 순이

반면 승진이나 결혼 등 기쁜 일

이 있을 때 즐기는 술로는 전체의 34%가 위스키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맥주(18.1%), 소주(6.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으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높은 업무 강도(23.1%), 적은 수입(19.3%), 직장에 대한 낮은 만족도(17%)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79.04 (-2.85)
코스닥지수	540.43 (+2.64)
금리 (국고채 3년)	2.76%
원·달러 환율	1,110.70원 (-1.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국내개발 | 국내생산 특허 제10-1171252호



###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국산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TV시청할 때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강의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상담할 때

2012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참가전시  
기간: 10.18(목)~10.20(토)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충장로 1가입구 탐앤탐스 8층**

# 우리밥상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 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주차안내: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  
\*승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 떨어져 있음)